

## 濟州 神話와 女性의 位相

- 세경본풀이를 중심으로 -

徐 庚 林\*

### 目 次

- I. 序
- II. 세경본풀이와 濟州 女性의 位相
  - 1. 「세경본풀이」의 줄거리
  - 2. 세경본풀이에서 본 男女 同權意識
- III. 結 語

### I. 序

한 민족의 문화는 그 민족의 도덕이나 윤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한국 사회의 윤리는 유교에서 비롯한 가족 사회의 윤리이다.

우리의 전통적인 도덕도 가부장제적인 가족을 중심으로 한 것이다. 가족 성원간의 인륜 관계를 규정하는 도덕을 중심으로 하여 孝는 그 정점이라 할 수 있다.<sup>1)</sup>

「七去之惡」, 「三從之道」, 「女必從夫」로 표현되는 이조시대의 여성의 위치는 당시 가족생활의 습속 내지 윤리와 여성의 법적 지위가 어떠했나를 쉽게 짐작하게 한다. 이러한 윤리는 중국의 宗法制度의 영향으로, 그 특징은 첫째, 男系血統繼承主義로서 친족범위도 父系만을 계산하고, 父의 신분과 권리가 子에게 계승되며, 一族의 權力이 父에게 속하므로 모두가 父의 지배를 받는다.

\* 제주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교수

1) 尹泰林, 「韓國人」, 玄岩社, 1976. P. 149.

둘째로는 族外婚을 원칙으로 하며, 셋째는 長子相續制度를 택하였다. 이로써 여자는 家系를 繼承할 수 없다. 따라서 남자와 심한 차별을 받게 되고 출가하면 親家와 절연될 뿐 아니라 男系血族의 유지를 위한 도구로 전락한다. 「七去之惡」을 빙자한 축출을 감수해야 하고, 개가의 금지에 의해 청상의 비운을 겪어야 했다. 이처럼 여자에 대한 가정 내에서의 가혹한 대우는 사회적으로 여자를 천대하는 풍습으로 변하게 되었다.<sup>2)</sup>

일반 서민도 班常의 엄격한 계급제도 아래서 이중 삼중의 억압을 받았다. 정치적으로는 수탈의 대상이요, 법적으로는 권리가 박탈되어 인격으로 대우받지 못한 상황에서는 인간으로서의 자각, 자아에 대한 인식이 생성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한국의 여성사는 바로 얼마만큼 여성을 木石化했느냐 하는 여성 인격의 말살과정을 뜻한다. 집이라는 이름의 감옥에 가두어 두고, 그릇 한죽 해아릴 수 있는 지능마저도 허락 받지 못했으며, 자신이 낳은 아이에게 미소지어 보이는 정도의 감정 표시조차 부덕한 것으로 비난받았다. 「움직이는 목석」을 이상적인 여인상으로 생각했던 것이다.<sup>3)</sup>

이조시대 남성들이 어떠한 여성관을 가졌는가는 다음의 예가 잘 보여준다.<sup>4)</sup>

李澗은 세상 물정을 잘 아는 학자이면서도 “부녀자는 勤과 儉, 그리고 男女有別의 三戒만 알고 지키면 족하니라. 讀書(한문책을 읽는 것)와 講義는 장부가 할 일이니 부녀자에게 힘쓰면 폐해가 무궁하다(「星湖僿說」卷三上 親屬)”고 하였다.

李德懋는 “부녀자는 諸家姓氏와 우리 나라 역대 국호와 성현들의 名字나 알면 족하니, 함부로 詩詞를 지어 외부에 전파함 같은 것은 불가하다(「士小節」卷四 婦儀)”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남성들의 횡포도 여성 본연의 실존적 자세마저 바꾸어 놓을 수는 없었다. 사랑이란 여성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실존적 본성이요, 그 전부라고 할 수 있다. 이 본성은 강하게 누르면 풍선처럼 그 눌린 만큼 다른 쪽으로 부풀려 다른 곳으로 탈출구를 찾게 된다.

이조시대의 여성상은 유교윤리에서 요구하는 규범을 잘 인고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이것이 예외 없이 이조시대의 여성상의 전부라고는 할 수 없다. 유교적 규범이 철저한 사대부의 집안에서나 가능했던 것이고, 서민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였다.

유교규범의 원칙이 모든 서민에게까지 강요될 수는 없었다. 국가는 서민에게도 이를 강조하면서도 방치하여 예외를 인정하였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조시대의 폐쇄적인 여성상의 예외를 제주의 무속서사시인 「세경본풀이」에서 찾게 된다. 세경본풀이에 나오는 여주인공 「자청비」는 남녀관계에 있어서 적극적인 개방성을 띠고 있고, 전통적인 여성상과는 달리 지혜와 기지로써 자기운명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제주 무속신화인 세경본풀이를 중심으로 제주 여성의 의식세계, 그것도 남녀의 위상에 초점을 맞추어 살피기로 한다.<sup>5)</sup>

2) 李兌榮, “韓國女性의 法的地位”, 「韓國의 法律文化」, 時事英語社, 1982, P. 81.

3) 李圭泰, 「韓國人の 再發見」, 文理社, 1977, P. 10.

4) 金仁顥, 「韓國 濟州 歷史·文化 뿌리學」, 宇鑰出版社, P. 276. 참조.

## II. 세경본풀이와 濟州 女性의 位相

### 1. 「세경본풀이」의 줄거리

세경본풀이는 제주에서 큰굿 때의 「세경본풀이」라는 祭次와 그 외 「명감」등 農神을 위 한 굿을 할 때, 심방이 제상 앞에 장고를 치며 불리운다. 제주에서는 농경신을 「세경신」이라고 하는데, 이 세경신은 상세경·중세경·하세경 세 神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청비는 세 神중 원래 남자로 태어날 몸이었으나, 그의 아버지인 김정국대감이 절에 바치는 시주품목중 명주 한 근이 모자라게 되어 여자로 태어나게 된다.

무남독녀로 어렵게 태어난 자청비는 얼굴이 아름답고 활달하여, 열 다섯이 나던 해에 빨래터에서 하늘옥황 문국성의 아들 문도령을 만난다.

문도령은 아래마을의 거무선생에게 글공부를 하러 가던 길이었다. 그는 자청비의 아름다 운 얼굴에 반하여 그대로 지나칠 수가 없었다.

문도령은 자청비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자, 그녀는 바가지에 버드나무 잎을 띄워 건네 준다.

“아가씨, 아름다운 얼굴과는 다르게, 맑은 물에 굶은 티는 왜 띄웠소?”

“도령님아, 한 일은 알고 두 일은 모른 도령이구나. 목이 마를 때 너무 급히 마셔 물에 얹히는 경우에는 약도 없답니다.”

자청비는 문도령이 글공부를 하러 가는 길임을 알고, 자기도 함께 갈 것을 결심한다. 문도령에게 자기의 남동생을 함께 데리고 가 줄 것을 요구한다.

그녀는 부모에게 달려가서 자기도 선비처럼 글공부를 하러 가고 싶다고 조른다.

“계집년이 글공부가 다 무엇이냐?”

“아버님아, 어머님아, 늙어서 딸자식 하나 얻고, 내일이라도 아버지나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시면, 기일 제사 때, 지방은 누가 쓸 겁니까? 저가 공부하여 쓰겠습니다.”

자청비는 부모의 허락을 얻고, 남동생으로 변장하여 문도령과 함께 길을 떠난다. 그 때부터 둘은 친구로서 생활을 같이 한다. 남녀가 한 방에서 생활하는데, 여자로서의 본색이 드러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자청비는 미리 피로서 이것을 은폐한다.

자청비는 글을 익혀가는 것이 모든 선비보다 출중했으나, 여자로서의 모습은 숨기기 어려웠다. 문도령은 자청비의性を 확인하고 싶어 오줌갈기기 내기를 제의한다.

문도령의 오줌줄기는 여섯 척 반이나 나갔다. 그러나 미리 하문에 대통을 끼운 자청비는 열 두 척 반을 갈겨, 이긴다.

5) 신화는 현용준의 「濟州島 巫俗資料事典(신구문화사, 1980)」에 있는 것을 위주로 하고, 진성기의 「제주도 무가본풀이 사전(민속원, 1991)」을 보조자료로 참조하였다.

그런데 문도령 아버지한테서 공부는 그만하고 미리 정해둔 서수왕의 딸에게 장가를 들라는 전갈이 온다. 문도령이 곧 떠나려고 하자 자청비도 같이 따라 나섰다. 오는 도중에 시냇가에 나란히 이어진 두개의 물웅덩이가 있어 각자 한 통을 차지하여 목욕을 했다. 자청비는 버드나무 앞에 글을 써서 아랫쪽 물통으로 띄우고 집으로 간다.

“눈치 모른 문도령아, 멍청한 문도령아. 연 삼년 한 이불 속에 잠을 자도 눈치 모른 문도령아.”

문도령이 이것을 읽고 헐떡거리며 자청비집에 닿았을 때, 자청비는 그에게 그간의 숙임수에 대한 용서를 빌고, 자기 집에서 하루 밤 쉬어 가기를 청한다. 둘이서 자청비의 부모님께 문안드리고, 문도령은 자청비의 방에서 쉬게 된다. 자청비의 부모는 문도령의 나이가 십오세 이하이므로 한 방에서 자게 한다.<sup>6)</sup> 이 때 비로소 둘은 정을 나눈다.

다음 날 아침, 문도령은 박을 딸 때에 상봉할 것을 약속하고, 하늘로 올라간다. 그러나 박이 열려 익어가도 돌아올 줄을 모른다.

어느 날, 자청비는 상루에 올라, 창문을 열어 남쪽을 보아도 님은 오지 않고, 다른 집 머슴이 몰고 오는 쇠머리에 꽃혀 있는 진달래꽃만이 마음을 어지럽힌다.

자청비는 문 밖에서 이를 잡고 있는 자기집 머슴인 정수남이를 만난다. 게으른 그를 욕질하며, 다른 집 머슴처럼 뺨감을 해오도록 명한다.

이튿날, 정수남이는 소 아홉, 말 아홉 마리에 길마를 지워 놓고, 점심을 그 위에 얹혀 산속으로 나무를 하러 간다. 게으른 정수남이는 마소들을 나무에 매어 놓고, 잠을 자다 보니 며칠이 지난지 몰랐다. 마소들은 애가 말라 다 죽어 갔다.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마소들을 다 구워 먹는다. 남은 것은 마소들 가죽뿐 이었다.

가죽을 매고 내려오던 정수남이는 오리 소에 있는 오리를 보고, 그것을 잡으려고 도끼를 던졌으나, 도끼만 잃고 만다. 도끼를 찾는 중에 가죽과 옷을 모두 도둑맞는다.

알몸에 땀이덩쿨로 겨우 앞을 가려 소로를 통해 뒷문으로 집에 들어가 장독대에 숨는다. 나중에 발각된 정수남이는 엉뚱하게 문도령을 보았다는 말로 자기의 잘못을 변명한다.

문도령이라는 말에 현혹된 자청비는 정수남의 꼬임에 빠져 그를 책망하지 않고, 함께 문도령을 만나기로 계획을 세운다.

며칠 후에 자청비는 말과 음식을 준비하고 문도령을 만나기 위해 떠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말을 다루는데 익숙한 정수남이는 여러 가지 꾀로 하인인 자기가 말을 타고 자청비는 점심을 지고 견게 한다. 자청비 몫의 점심은 너무 짜게 만들었으므로 조금 밖에 먹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목이 말라 물을 찾게 된다.

음흉한 정수남이는 금기어를 인용하며 물이 많이 고인 곳으로 자청비를 안내한다. 스스

6) 이 부분에서 진성기의 자료와는 그 내용이 다르다. 진성기의 사전에는, 자청비의 부모가 자청비와 문도령이 한 방에서 같이 자도록 허락한 것은 둘 다 여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자청비가 부모에게 문도령을 여자라고 했으므로).. 진성기, 상계서, P. 242.

로 옷을 모두 벗고 물 마시는 시범을 보이면서 자청비에게도 똑같이 하도록 한다. 목마른 자청비는 그대로 좃다가 옷도 빼앗기고 몸까지 더럽힐 위기에 처한다.

속은 것을 안 자청비는 기지를 발휘하여 정수남의 요구를 회피한다. 움막을 짓게 하는 등 밤을 무사히 넘기고, 자기의 무릎 위에 잠을 자도록 유인한다.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를 죽일 수밖에 없다고 결심하고, 덩쿨을 그의 귀 속에 찔러 죽이고 만다.

상전을 능욕하려던 종이라고 하더라도 그를 죽이고 나니 살인을 한 것이었다. 스스로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된다. 바둑을 두던 신선을 통해 그것을 더욱 뼈저리게 느낀다.

자청비는 부모에게 종을 죽인 것을 고지하고, 자식인 자기와 종을 비교할 것을 요구한다. “이년아, 저년아 남도 낫저(잘 낡구나). 지집년이 사람을 죽이다니. 네 년은 시집을 가면 그만이지만, 그 종은 살려두면 우리 두 늙은이 먹을 오몽(노동)은 허여 준다.”

자청비는 스스로 종노릇을 자청한다. 부모는 딸을 시험하기 위해 넓은 밭에 좁쌀 다섯알 다섯되를 뿌려 놓고 그것을 모두 주워 오도록 한다. 눈물을 펄펄 쏟으며 좁쌀을 모두 줍다가 한 알이 모자랐다. 개미가 물어간 것이다. 개미의 잔등을 밟으며 그것을 빼앗아 부모에게 드리고, 납장을 하여 가출한다.

아랫 마을에 가까이 갔을 때, 어린이 셋이서 죽은 부엉이 한 마리를 두고 자기의 것이라고 다투는 것을 보고, 돈을 주고 그것을 산다. 부엉이를 서천꽃밭에 던져 놓고, 이 밭의 꽃 감관인 황세곤간을 만난다. 그에게 자기가 활로 서천 꽃밭에서 날고 있는 부엉이를 쏘았는데, 화살이나 찾아가려고 들렀다고 한다.

마침 이 서천꽃밭에는 부엉이가 밤중만 되면 날아와 울면서 꽃밭을 망치고 있어, 이 부엉이를 죽이면 사위를 삼겠다고 약속한다. 자청비는 자기가 말을 잘 다루는 것을 보여 주고, 괜찮은 집안의 도령이라는 것을 인정받는다.

그 날 깊은 밤 중, 자청비는 옷을 훌랑 벗고 몰래 나가 下馬石에 누워 정수남이의 혼령을 부른다. 정수남이의 혼령은 부엉이가 되어 자청비의 가슴 위에 앉는다. 화살 한대로 부엉이를 찔러 서천꽃밭으로 던지고 아무 일 없는 듯 방으로 들어 온다.

자청비는 황세곤간의 신뢰를 얻고, 막내딸의 사위가 되었으나 백일 동안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다. 자청비는 과거시험 때문이라고 핑계대고, 부인에게 시험보러 가기전에 서천꽃밭을 구경시켜줄 것을 요구한다. 부인의 설명을 따라 죽은 사람 살리는 꽃을 따서 숨긴다.

자청비는 과거시험을 보러 간다고 집을 나와 환생꽃으로 정수남이를 살려 부모에게 데리고 간다.

“자식보다 더 가까운 종 살려 왔습니다.”

“계집년이 잘도 낡구나.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년, 그대로 두었다가 집안 망하게 할 년이로다. 어서 바빠 나가라.”

부모는 오히려 야단을 친다. 자청비는 눈물을 쏟으며, 정처없이 발길 닿는대로 걸어 간다. 해는 서산에 지고, 의탁할 데도 없이 비새처럼 울다가 배를 짜는 소리를 듣는다. 그것

은 주모할머니의 집에서 나는 소리였다. 자청비는 그 할머니의 수양딸이 되어 비단을 짜는 것을 배운다. 그 솜씨가 곧 주모할머니를 능가한다.

어느 날 자청비는 그녀가 짜는 비단이 문도령이 서수왕 따님에게 장가드는 데에 쓸 폐백용임을 알고 '가련하다 가령비, 자청하다 자청비'라는 글자무늬를 짜 넣는다. 그리고 양모에게 하늘 옥황에 그 비단을 바칠 때, 누가 짚느냐고 묻거든 '주년국 자청비'가 짚었다고 말해달라고 부탁한다.

주모할머니가 문도령에게 비단을 보이니, 그 솜씨를 보고 누가 짚느냐고 묻는다. 문도령은 자청비에 관한 그 간의 사정을 모두 듣고 만나고 싶어 한다.

“내일 사·오시쯤 자청비를 만나겠다고 전해주시요”

주모할머니는 새벽부터 큰 돼지를 잡아 놓고 점심상을 마련한다. 만날 시각에 창에 문도령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거기 누구 오셨습니까?”

“하늘 옥황 문도령이노라. 문 열어라”

반갑고 기쁜 자청비는 장난끼가 발동한다.

“결창 구멍으로 손가락 내 보이십시오. 알 도리가 있습니다.”

자청비는 바늘로 손가락을 살짝 찔렀다.

“인간에 사람 다닐 곳 아니로다. 부정이 많고나.”

문도령은 그대로 하늘로 올라간다. 자청비도 그녀대로 돌아졌다.

주모할머니는 그녀의 경솔한 행동을 꾸짖으며 내쫓는다.

자청비는 또 갈 곳이 없다. 사월 초파일, 머리를 깎고 승복차림으로 목탁을 치며, 쌀을 얻으러 다닌다.

하루는 세거리에서 하늘 옥황의 궁녀들이 울고 있는 것을 본다. 궁녀들은 문도령이 자청비와 옛날에 목욕했던 물을 떠오라고 명했지만, 그것을 찾을 수 없어 우는 것이었다. 자청비는 하늘로 같이 동행할 것을 조건으로 물을 찾아주고 함께 하늘로 올라간다.

하늘 옥황에는 날이 저물고 보름달이 뜨고 있다. 자청비는 문도령 집 앞의 팽나무에 올라서 노래를 부른다.

“저 달은 곱다마는 하늘 옥황 문왕성 문도령 얼굴보다 더 고우라”

문도령은 곧 자청비의 목소리임을 알고 전에 이별할 때 준 열레빗 한 조각과 맞추어 확인한다. 자기 방으로 자청비를 몰래 맞아드려, 만단정화를 나눈다. 그렇게 여러 날을 지나니, 느린덕정하님이 눈치를 챈다. 자청비도 이것을 알고 미리 문도령에게 대비책을 마련하게 한다. 그는 자청비가 말한 대로 부모에게 수수께끼를 청한다.

“새 옷이 따스합니까? 묵은 옷이 따스합니까?”

“새 옷은 남 보기엔 좋다만 따습기는 묵은 옷만 못하다.”

“새 간장이 답니까? 묵은 간장이 답니까?”

“묵은 간장이 깊은 맛이 있다”

“새사람이 좋습니까? 묵은 사람이 좋습니까?”

“새사람은 시집오면, 처음에는 밤쥐처럼 이리 저리 뛰어다니지만, 길들인 사람만 못하다.”

“그러면 서수왕 딸에게 장가들지 않겠습니까.”

부모는 문도령의 수수께끼의 뜻을 알아채고, 무시무시한 과제를 제시한다. 자청비는 그 과제를 힘겹게 끝내고 며느리가 된다.

한편, 문도령에게 버림받은 서수왕의 딸은 열받아, 백일 동안 문을 잠그고 누웠다가 새가 된다. 이 새는 다정한 부부를 이간시키는 작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여자가 신부가 되어 잔칫상을 받으면 먼저 음식을 조금씩 떼어 내어, 이 서수왕 따님의 화신에게 대접해야 한다.

어느 날, 자청비는 자기를 기다리는 서천꽃밭의 막내딸 생각이 난다. 문도령에게 사실을 이야기 하고 자기 대신 남편 행세를 하며, 보름을 간격으로 번갈아 살기를 권한다. 문도령은 자청비의 얼굴과 다른 이유를 과거시험 때문이라고 둘러대고, 서천꽃밭 막내딸과 꿈같은 세월을 보낸다. 보름이 아니라 한달이 지나간다.

자청비는 새 날개에 편지를 끼워 문도령에게 보낸다. 문도령은 겁이 나서 말안장을 거꾸로 지워 놓고, 관이 아니라 행전을 둘러 쓰고, 한쪽 어깨에만 두루마기를 걸친 채, 말을 타고 채찍질하여 돌아 온다.

마침 자청비도 머리를 풀어 빗질하려고 할 때였으므로, 바쁜 김에 풀어 헤친 머리를 꼬리로 급히 묶어, 문간으로 내달았다.

“낭군님아, 낭군님아, 모든 차림새가 바뀐 차림새가 되었습니다. 이 기회에 法之法을 마련하십시오.”

인간의 일생에서 부모가 죽었을 때가 가장 바쁘니, 부모가 죽어 성복하기 전에는 통두건을 쓰고, 두루마기는 한 쪽 어깨에만 걸쳐야 하고, 여자 상체는 머리를 풀어 꼬리로 묶어야 하는 法을 마련한 것이다. 이것이 法중의 法이다.

세월이 얼마간 흐르면서 궁에서는 자청비 부부를 질투하여, 문도령을 죽이고 자청비는 푸대삼할 것을 모의한다. 이것을 감지한 자청비는 문도령의 가슴에 숨을 넣으며, 궁에서 궁녀들이 술을 권할 때에 마시지 말고 가슴에 부어버리도록 당부한다.

문도령은 명심하여 위기를 모면하였지만, 외눈박이 노파가 술 한잔 팔아 저녁준비를 하게 해 달라고 애원하므로, 그것을 사 마신다. 술에는 독약이 있었으므로 말에서 떨어져 죽고 만다.

자청비는 슬퍼할 시간이 없다. 문도령의 시체를 업어다 방에 눕히고, 이불을 덮는다. 밤 사이에 매미와 등을 채집하여, 실로 묶고 옷걸이 못마다 걸었다.

이튿날 낮에 자청비를 푸대삼하려고 군졸들이 몰려왔다. 그녀는 베틀에 앉은 채로 말한다.

“당신네들이 나를 푸대삼하러 왔지만, 우리 낭군 먹는 음식이나 먹으면 내 자청하여 가 오리다”

군졸들은 승락한다. 자청비는 합지박에 무쇠 수제비를 떠다 놓는다. 한놈이 수제비를 떠 먹으려고 하니, 입안이 와지끈거리 먹을 수가 없다. 자청비는 다시 문도령이 깔아 앉는 무쇠방석을 선반에서 꺼내 앉으라고 요구한다. 군졸들 중 누구도 무거워서 그것을 내릴 수가 없다. 그들은 문도령이 힘이 센 장수로 착각한다.

그 때 군졸 한 명이 문도령 방의 동정을 살피려고 방 앞에서 기웃거린다. 때 맞추어 매미와 등에들이 합창한다. 군졸들은 그것을 문도령의 콧소리로 알고 도망친다.

자청비는 서천꽃밭에 들어가 도환생꽃을 얻어 남편의 시체에 뿌려, 남편을 살려낸다.

한편, 하늘 옥황에는 큰 사변이 일어나, 이 난을 평정한 자에게는 땅 한 조각, 물 한 조각을 나누어 주겠다는 방이 붙었다. 자청비는 멸망꽃을 동서로 뿌려 수만명의 적군을 죽여 난을 평정한다. 그러나 천자가 주는 땅과 물은 사양하고, 오히려 씨앗 정도만 달라고 한다.

오히려 씨앗을 받고, 칠월 보름날 문도령과 함께 인간 세상으로 내려 온다. 마침, 배가 고파 휘청거리는 정수남이를 만나, 친정 부모가 돌아가신 것을 안다.

자청비는 배 고파하는 정수남이를 푸대접한 부자에게는 대홍년을 내리고, 잘 대접한 가난한 두 늙은이에게는 대풍년이 되게 한다.

자청비는 오히려 씨를 뿌리다가 씨앗 한 가지를 잊어 버린 것을 발견하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서 얻어 왔는데, 그것이 메밀이다. 파종기를 놓치긴 했지만, 다른 곡식과 함께 가을에 거둘 수가 있었다.

이렇게 하여 문도령과 자청비는 農神인 세경이 되고, 정수남이는 畜産神이 되어, 많은 牧者를 거느려 마소를 치며 칠월에 마불림제를 받아 먹게 되었다. 그래서 문도령을 상세경, 자청비를 중세경, 정수남이를 하세경이라 부르는 것이다.

## 2. 세경본풀이에서 본 男女 同權意識

신화속에 나오는 자청비의 家는 유교 집안으로 설정되어 있다. 자청비가 문도령과 함께 글공부를 하고자 했을 때, 자청비의 부모는 자청비가 여자임을 내세워 반대한다. 이 점은 조선조의 유학자들의 사고와 일치하고 있다. 이렇게 유교 집안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청비는 남녀관계에 있어서 아주 개방적이다.

넷가에서 생면부지의 문도령과 만났을 때에 먹을 물에 티를 넣은 이유를 묻자,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자”라고 나무라는 대목에서 자청비의 활발하고 진취적인 성격을 알 수 있다.

한편, 문도령은 고지식한 성품이다. 글공부하는 동안 한 방울 같이 쓸 때에 잠자리를 침범하지 않을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잠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소심함을 보인다. 형식에 억매어 있는 전형적인 선비의 모습이다. 문도령은 이론바 하나를 배우면 그것에만 매달리고,

더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

자청비는 활달한 성품에 경쟁심도 대단하여 자기에 다가오는 여러가지 시련을 꺼리낌 없이 헤쳐나간다.

문도령이 정말 남자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 오줌 갈기기를 제의했을 때, 미리 하문에 대통을 끼운 자청비는 문도령을 훨씬 앞지르고 있다.

공부에도 자청비가 낫고, 씨름을 해도 자청비가 이기고, 달리기를 해도 자청비가 이긴다. 문도령뿐만 아니라 같이 공부하는 삼천 선비를 앞서고 있다. 자청비는 하나를 알면 열을 아는 영리함과 기지를 발휘한다.

자청비의 개방성은 여성인 자청비가 문도령에게 먼저 求愛를 하는 모습에서 단적으로 나타난다. 이조 시대의 규범에 비추어 본다면 파격이며 예외적인 것이다.

자청비는 당시의 제도를 보아서는 용인할 수 없는 그녀의 뜻을 달성하기 위해 온갖 시련을 겪는다. 문도령에게 접근하기 위해 남장을 하고, 사랑에 눈이 어두어 하인인 정수남이의 피임에 빠져 성희롱을 당하기도 한다. 자기를 지키기 위하여 부득이 살인을 감행한다. 이미 정혼이 되어 있는 문도령과 혼인을 하기 위해 작두에 오르는 것도 마다 하지 않는다.

유교적 가족제도 안에서의 女子의 지위는 숨막힐 정도로 예속적이어서 법률상 無能力者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婦人은 남편과 시부모를 하늘처럼 받들어야 하고, 시집가기전에는 父에게 복종하고, 父가 죽으면 아들에게 복종해야 하는 三從之道가 여자의 미덕인 것이다.<sup>7)</sup>

“그릇은 빌려주면 깨지고, 여자는 들면(나들이 다니면) 버린다”라는 속담과 같이 여자의 외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부득이 외출할 때는 양반들은 가마를 타야 한다. 가마가 없을 때는 장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종이라도 동행해야 한다.

이조 시대의 內外法은 부녀자가 외간남자와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하지 않는 것으로 男女七歲不同席이나 男女不共食飲, 夫婦有別도 유교적 기준에서 비롯한 것임이 틀림없다.

그런데 제주도에는 젊은 남녀간에 內外라는 것이 없었다. 처음 만나는 문도령과 자청비 사이에 內外法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기에 제주도에는 얼굴을 가리기 위한 장옷이나 샷갓은 없었다.<sup>8)</sup>

제주도의 巫歌에 나오는 “男女區別”은 內外法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자청비가 남자행세를 하며 서천꽃감관의 사위가 되었지만 본래 여자인 자청비는 백일이 가까워도 그의 딸과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다. 그 때 그의 딸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불만을 털어 놓는다.

“아버님아. 아버님아. 사람을 나무래여서(나무라서), 都高높은 사위를 하여 놓완, 남녀구 별법을 모릅니다.”<sup>9)</sup>

7) 朴秉濂, 「韓國의 傳統社會와 法」, 서울대학 출판부, 1985, p. 160.

8) 金仁顯, 前掲書, p. 268.

9) 진성기, 전개서, p. 310.

위의 뜻은 지고한 선비를 사위로 맞이했으므로 이 선비는 남자의 구실을 못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남녀구별이란 性 본래의 기능, 즉 남성으로서의 기능과 여성의 기능을 말한다. 부부가 함께 있어도 가만히 있다면, 그것은 곧 원초적인 암수의 구별을 못하고 있는 것이 된다. 이것은 “시왕맞이”의 “해심곡”에도 같은 의미를 지닌 구절이 나온다. 즉 “너는 인간에서 남녀구별 몰라지고 자식 하나 못보왔구나”라는 내용이다. 부부간에 제대로 생활할 못한다면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것을 최악시했던 것이다.

우리는 자청비에게서 강한 責任感을 찾는다. 게으르면서도 밥만 치우고, 응큼하게 상전인 자기까지 범하려고 하였던 정수남이를 죽인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죽인 후 당황하여 마을로 내려 오는 도중에 三白官을 만나면서 責任感이 강해진다.

“저기로 가는 저 비바리, 바람 밀으로 지나가라. 不淨이 가득차고 있구나”

“백관님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처녀가 지나가는데 어찌 조롱을 하옵니까?”

“나대로 나 罪는 모른다더니, 이년아, 너의 말고뻘 앞을 보라. 왼쪽 귀에서 오른쪽 귀로 멩게낭 살(청미래덩굴 矢)에 찢려 유혈이 낭자한 머리 풀린 총각놈이 서 있는 줄 모르느냐?”

“과연 나대로 나 罪를 아읍니다.”

자청비는 부모에게 정수남이를 죽인 전후사정을 설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녀는 사람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부모의 귀중한 재산을 훼손시킨 것이다. 어떻게 하든지 정수남이를 살려 이를 배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청비는 환생꽃을 얻기 위해 꽃감관의 사위가 되는데, 여기서 또 희생자가 생긴다. 자청비와 결혼한 꽃감관의 딸이 생과부가 될 터이다. 자청비는 사랑하는 문도령을 꽃감관의 딸에게로 보낸다. 선보름은(先十五日)꽃감관의 딸과, 후보름동안은 자기와 살도록 한 것이다. 문도령은 이증결혼을 하게 되었고, 자청비 쪽에서 보면 문도령으로 하여금 첩을 두도록 권유한 것이 된다. 자청비는 사랑하는 남편을 빼앗길지도 모를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자기에서 비롯한 문제에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다.

시앗을 보면 길가의 돌부처도 돌아 앉는다는 속담처럼 아무리 도량이 넓은 부인도 절투가 없을 수 없다. 제주의 여성들도 예외는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부인들로 하여금 첩을 얻는 것을 용인하거나 또는 권유하게 했는가.

제주에는 부인이 가장 적대관계가 될 수 있는 시앗을 구하여 사·오십이 되는 남편에게 새 장가들이는 풍습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 밤은 죽은 집(小妾)에 강 씨뿌령 읊서”하며 남편을 내몬다. 남편도 주부의 지시에 고분고분 따른다. 전형적인 主婦從夫型이다.<sup>10)</sup>

주부가 식량을 보관하는 庫房門의 열쇠를 관리하며 경계권을 쥐고 있다. 고방문 열쇠를

10) 시앗은 제주에는 보통 “씨앗” 또는 “씨왓”으로 발음한다. 자기 남편의 귀중한 씨 곧 種子를 타인에게 빼앗긴다는 “씨앗”과 씨를 받아 싹이 트게 하고 자라게 하는 발이란 의미의 “씨왓”이 있다고 한다. 金仁顯, 전계서, pp. 231-232.

만머느리에게 넘겨주는 것도 주부이다. 자녀를 혼인시킴에 있어서 許婚, 擇日, 음식장만 등 범사가 주부의 의사에 좌우된다.

이처럼 대를 이을 자식을 낳지 못했을 때, 대신하여 낳아 줄 여인을 구하는 것이 부인이다. 시앗이 후사를 낳지 못하거나 남편을 잘 모시지 않을 때 이를 질책하는 것도 본부인이다. 責任不履行에 대한 질책인 것이다. 남편이 시앗에 빠져 본부인을 박대하면 門中이 용서하지 않는다. 속담에도 본부인을 박대하면 좋지 않다고 금기시하고 있다.

자칭비는 죽은 남편을 살어나게 하였고, 큰 난을 평정하였다. 그 방법이 멸망꽃을 뿌렸든, 아니면 백마에 올라타 비수로 적을 죽였든 제주에서 “예청” 내지 女丁과 깊은 관계가 있다.

제주 女丁은 제주도 城을 지키는 守城軍의 역할을 하였다. 17세기 초엽 金尙憲이 敬差官으로 왔다가서 펴낸 「南槎錄」에서 제주 女丁에 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sup>11)</sup>

余按本州 城中男丁五白, 女丁八白, 女丁者, 濟州之語也. 蓋男丁甚貴, 若遇事變守城, 則道民家健婦, 發立 塚口稱爲女丁 三邑同然.

(제주성을 지키고 있는 군사는 남자 군인 500명이며, 여자 군인 800명인데, 女丁이란 제주에만 있는 말이다. 제주에는 남자가 귀하여 만약 사변을 당하여 도성을 지키게 되면, 민가의 건강한 부녀자들을 골라 화살밭아터에 세워 적을 감시하게 하였다. 그래서 女丁이라 하였고, 이것은 三邑이 다 같다)

女丁이 男丁보다 수가 많았다는 것은 각기 역할은 달랐을지 모르겠으나, 다같이 병역의 의무를 다 했다는 것이 된다. 男丁만으로는 부족해서 女丁으로 보충한 것만은 아니다.<sup>12)</sup>

자칭비는 제주 女丁의 여러가지 속성을 하나의 여인상으로 압축시킨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유교의 형식과 도덕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의 굴레를 하나씩 벗어나는 굳굳한 여인상을 나타내고 있다. 자기에게 다가오는 모든 난관을 슬기롭게 받아들여 파고를 타고 넘는다. 스스로 請한다는 의미에서 자칭비라고 하였듯이 적극적으로 자기의 삶을 개척하는 것이 여성 본래의 모습이라고 할 것이다.

### Ⅲ. 結 語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류사회에는 신분적 계급 외에 남녀 성차별이 근세에 이르기까지 오랜 세월동안 계속되어 왔다. 그러므로 여성은 신분적 계급의 지배와 함께 성차별의 지배까지 받아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류사회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었으며, 例外的인

11) 金尙憲(金禧東譯), 「南槎錄」, 永嘉文化社, 1992, p. 61.

12) 金仁顯, 전계서, p. 222.

현상도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다.

젊은 남녀간의 사랑에 대해 高句麗와 高麗, 그리고 제주도에서도 자유연애가 보통이었음이 문헌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것도 남의 눈을 피해 密會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을의 청년남녀들이 한데 어울려 즐겁게 노는 대중집회에서 이루어진다는 데에 특징이 있다. 남자가 손을 맞잡고 춤을 추다가 흥이 고조되면, 눈맞는 상대방을 골라 줄행랑을 친다는 것이다.

「삼국지」 권 30, 고구려전의 기술에 의하면 「基民喜歌舞 國中邑落 暮夜男女群聚 相就歌舞」라고 하여 국내 모든 촌락에서 백성들은 저녁에 남녀들이 모여 노래와 춤을 즐기며 논다고 한다. 이러한 기술은 중국의 역대 사서에 인용·수정·보충의 형식으로 이어져 있다.<sup>13)</sup>

제주도에서는 18세기초에 李衡祥이 쓴 「南官博物」에 제주도 地誌를 인용하여 “제주도에서는 매해 8월 추석에 젊은 남녀들이 떼지어 노래와 놀이를 하고, 그 놀이는 좌우 두패로 나누어 줄다리기를 하는데, 이것을 照里戲라고 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한편, 17세기 전반기 당시 제주도 풍속을 알려주는 李建의 「濟州風土記」에는 잠녀들이 옷을 벗고 미역을 캐면, 남자들이 그것을 받는 모습을 “男女相雜”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남자가 뒤섞여 일하면서도 그것을 전혀 부끄러워 하지 않으니 참으로 놀랍다고 했다.

內外法을 신조로 하고 있는 선비의 눈에는 남녀가 어울려 함께 일하고 있는 모습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제주도에 전통적인 남녀관계인 것이다. 남성 본위의 관계가 아니라 水平的 관계이며, 상호보완적인 관계였다고 할 수 있다. 또 이것이 남녀관계에 있어서 본래적인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다. 서로 평등관계를 유지하면서 부부사이에 성실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은 제주도의 다른 巫儀인 「시왕맞이」에서도 습속규범으로 나타나고 있다.<sup>14)</sup>

자칭비의 男丁的 기질, 활달하고 개방적 성격, 內外法에 얽매이지 않는 평등의식, 강한 책임감속에서 적극성, 성취욕, 번쩍이는 기지가 잘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속성이 본래 濟州女人像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이조시대의 양반가의 여인상에 비추어 본다면, 분명히 例外的인 모습이다. 그러나 이 예외적인 것이 오늘날에 있어서는 본래적인 것으로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남녀간의 수평적 等權關係를 法制度에서만 확보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보다는 먼저, 여성들이 자칭비처럼 당당하게 스스로의 머리와 열성으로 모든 장애와 대결할 의지와 능력을 갖추어야 하리라고 본다.

13) 金仁顯, 상계서, p. 270.

14) 拙稿, “濟州巫俗과 習俗規範”, 「法과 政策」, 濟州大學 法과 政策研究所, 1996., P. 53.